

# 주안에게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 02

Feb. 2014  
Vol.2 No.2

- 양육훈련
- 사역국 활동 소개
- 교육부
- 칼럼 / 화보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n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세리토스채플 주안에말씀(성경통독 클래스)



## 양/육/훈/련...

2014년을 맞아 평신도 사역훈련원에서 실시하는 주안에 양육훈련이 본 궤도에 올랐다. 벨리와 세리토스 동시에 오픈 된 '주안에살' '주안에 말씀' 2개 과정에 등록된 2백여명의 성도들이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2월 첫 주에 시작했다. 주안에교회 성도들의 필수코스인 2개 프로그램 중 세리토스에서는 화,수,토요일 주안에살 3기(1,2권)가, 성경통독은 주일 오후에 진행된다. 벨리채플 주안에살은 수, 토, 주일에 열리며 성경통독은 목, 주일에 개설돼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 중이다. 양 채플에서 18주 과정의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한 두 성도들의 소감을 들어본다.

### 말씀의 은혜에 가슴 설레며



황은숙 집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 4:12)

먼저 주안에교회에서 말씀통독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올 한해 주안에 교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번 성경통독을 해왔지만 그저 완독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어 읽다보니 그저 의무감처럼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안에 말씀통독은 준비하는 마음부터 달랐습니다. 주안에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제 마음 속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이신 89명의 성도님들과 두 장로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저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겐 말씀이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읽어 가는데 저의 마음 밭에 꽃이듯이 기뻐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조금은 부담이 되었는데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을 읽는 중에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졌습니다. 올 한해 저에게 주신 이사야 58:11 말씀(“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리”)을 매일 새벽 묵상하며 주님께서 제게 이루실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6월 첫 주면 말씀통독을 마칩니다. 올 해는 2독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그 말씀이 제게 현실이 되고 미래가 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훨씬 친밀하게 다가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안에교회 말씀통독을 함께 시작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한 분도 도중에 하차하시는 일이 없기를, 모두 함께 여호와를 구하는 자의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성막의 모습이 스크린처럼



박해나 집사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시 119:105)

이 말씀은 pre-school 아이들에게도 발달 외우게 했던 구절임에도 내 인생은 정작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못했음을 알았고, 힘든 위기의 시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비춰지고 깨달아지면서 더욱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 온 가족이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자고 다짐했었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선 벌써 “성경통독”을 준비하시고 오라 하셨습니다.

해마다 성경읽기표대로 실천해 보았지만 실패했었는데, 주일 오후에 두 시간씩 같이 읽어서 18주만에 성경을 통독하게 된다니 얼마나 놀라운지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넓고 깊고 오묘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영의 눈을 밝혀 깨닫게 해 주실 거라는 기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과연 첫 날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졌습니다. 초고속의 빠른 속도로 다같이 읽어나가도 머리 속에 그림이 그려지듯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중 회막 짓는 것에 관한 어려운 단어들도 마치 스크린처럼 그려지며 읽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우린 두 번의 참여로 벌써 출애굽기 20장을 끝냈습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지는 날이 올거라 믿습니다. 통독을 하고 싶어 결정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선 벌써 우릴 은혜의 바다 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통독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와 힘든 부분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속에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매순간마다 만나며 살아가시는 주안에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 ...주/안/에/만/남

### 교회가 좋고 예배가 기다려져요



이현주 집사

우연히 직장 동료에게로부터 오랫동안 받아 들던 최혁 목사님의 CD 말씀을 통해 나의 갈급한 심령이 뭔가 채워지는 듯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출퇴근 길을 눈물로 보낸 날들과 많은 깨달음으로 성도의 길의 다림질을 보여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조금씩 깨져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지난해 자주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안예교회로 인도 받은 것은 올해 참으로 복 중에 복임을 수시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좋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레는 마음은 저의 신앙생활 중 처음 하는 경험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9일 주일 비전재침에서 있었던 주안에 만남에 참석했습니다. 주안에 만남을 통해 새로이 주안예교회 새가족이 되신 성도님들과 함께 최혁 목사님으로부터 교회의 비전과 목회 방향을 듣고 사역자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안예교회의 4가지 교회비전은 내가 갈망하던 바로 그 비전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예배를 사모해서 찬디에고에서 부터 오시는 권사님을 비롯해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행여 능질까 집중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고 예배 중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2.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이신 선교와 구제를 함께 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주안예교회 안에서 저도 틀들여 가길 희망합니다. 3.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아이들의 마태는 참으로 아름답고 감함을 느껴봅니다. 4.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 지하하는 교회, 우린 얼마나 갈급했는지... 많은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주안예교회로 모여드는 자석과 같은 느낌을 갑니다.

만나는 분들을 보거나 교육하는 장에 가면엔 신실하신 평신도 리더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 또 놀랍니다. 분명 저는 그 분위기에 속해 있음을 지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영적갈급함의 심령을 갖고 목마른 사슴이 사냇물을 찾아오는 것과 같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참으로 주안예교회는 시적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주안예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주안예교회를 통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리토스 채플>

### 세 시간이 너무 짧았던 만남



김영조 집사

새해 첫 주에 주안에 만남을 하지 않은 교우는 신정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몇 달이 지난 터라 다소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래도 웬지 주안에 만남을 한 번 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교회 사무실에 가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1월 12일, 주일예배를 마치고 주안에 만남의 장소로 갑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안예교회를 다닌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였으나,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아는 분들도 계셨고 또 테이블과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쁜 꽃들과 색색의 풍선들이 제 마음을 밝게 해 주었습니다. 나비 넥타이를 매신 장로님들께서는 맛있는 음식을 아름다운 미소와 더불어 일일이 서빙해 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담임목사님과의 사진 촬영이 있었고, 또 교역자 분들의 밴드에 맞추어 다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서 목사님께서 참석자들에게 자기소개와 함께 주안예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이야기에 보자고 부탁하셨습니다.

한 사람씩 자기소개와 함께 주안예교회에 오게 된 동기에 대해 발표를 하는데 한결같이 '목사님의 설교말씀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내나 남편이 가져다 해서', 또는 '설교 테이프를 듣고', 또는 '한국에서 방문자 왔다' 등등의 갖가지 사연을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제 마음에 제일 와 닿는 내용은 그동안 주안예교회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순한 어려움과 역을함,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았고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음에도 스스로 제 자신을 '마음이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제게 '주안에 만남'은 더욱 은혜로운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세 시간의 주안에만남이 너무 길지 않을까 하고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세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오면서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여보! 오늘 우리 주안에 만남 참 잘왔지?"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렐리 채플>

■ 간증

#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 CD 한 장

이규미 집사

저희 부부가 이 교회에 오게 된 동기는 친한 지인 부부(김호은,정원선) 집사로 부터 CD 한장을 건네 받았습니다. 꼭 들어보라는 권유였습니다.

남편은 절대 설교 CD를 차안에서 듣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 CD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CD를 듣고 평평 울었다고 말하면서 저보고 꼭 들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CD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도 CD를 듣고 울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공경한 마음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남편은 조금씩 변화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보자, 기도를 하자, 나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가정에 기도제목이 있어서 그날부터 통성 작정기도 21일에 들어갔습니다.

팬 처음에는 입밖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하루 하루 성령님이 임재하시는걸 느꼈

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통성기도 할때 제가 결혼생활 14년 하면서 오해하고 이해 못했던 부분이 남편의 기도로 오해가 풀어지고 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주님이셨습니다. 먼저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 여태 제가 잘못 알고 있던 주님과의 관계, 기도방법, 십일조의 당위성, 아직 멀었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 조금씩 생활에 적용하면서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흔 아홉 마리 양 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에 인도해준 김호은 집사님 부부와 김규실 집사님 부부께 감사드리며... 주님 말씀만을 감동하게 전하시는 최혁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 사역국장들 'Plan 2014'

■ 벨리 새가족국 이방걸 국장

주안에 새가족국은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모든 새가족을 환영하며 어색해 하시는 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주안에 교회의 한가쪽으로 정착해서 아름답게 뿌리내려 마음껏 꽃피고 열매 맺게 도와주는 부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지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 벨리 경조구제국 김찬곤 국장

경조구제국은 삼을 담합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장례 절차와 예배를 돕습니다. 경조 찬양대의 조직과 영정사진 촬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교회 내의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다양한 사역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세리토스 경조구제국 김영갑 국장

경조는 주안에 교회 성도들의 경사(결혼/돌/개업 등)와 조사(장례/사교 등)를 담당하였을 때 같이 기뻐하고 위로하며, 구제는 교회 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선교사 가정과 자녀를 돕는 사역입니다. 성도의 경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벨리 조경관리국 김복남 국장

조경관리국은 공원같은 주안 예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보수하는 사역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과 방문자들이 편안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늘 아름답게 가꾸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재정국 김경일 국장

재정국은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임을 자각하여 오차 없이 관리되도록 노력하며 헌금의 집계, 은행입금, 헌금과 관련된 문서의 기록, 보관 등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두 체플의 살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세리토스 증보기도국 이영진 국장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들어 교회가 뛰고 달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하나님 군대의 공병대와 같은 사역을 합니다. 예배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도록 매주 예배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 세리토스 시설, 셋업, 주차국 유궁재 국장

시설관리팀은 현재 셋업을 위한 운반장비, 보관시설 등의 제작 운영, 셋업팀은 주일 예배의 준비 및 철거 보관하는 사역, 주차관리팀은 주차 안내 및 차량 보호 사역을 합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 세리토스 예배국 신하철 국장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준비된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부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세리토스 새가족국 장경출 국장

을 한해는 새가족팀 모두가 교회 안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 등록하는 교우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데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 사역국을 소개합니다 ●

“건강상담, 정성 다하는 진료”



의료국

지난 2월 첫 주, 주안예교회 벨리채플 의료국 산하 의료실 문이 친교관 2층에 열려 많은 교인들이 한방치료와 건강상담을 받았다.

주안예교회 의료국은 주안예교회 교인들이 간단한 응급처치에서 전문적인 한방진료에 이르기까지 큰 어려움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된 활동은 응급처치, 한방진료, 건강관리 정보제공, 의료상담, 의료통역, 감기 예방접종 등이다.

주안예교회 의료국은 한국과 미 주류에서 전 현직 약사, 간호사, 한의사, 의료 통역사 등의 전문직 의료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 박태숙집사는 척추 전문으로 한의학을 전공한 후 한국과 미국에서 오랫동안 진료해 왔으며, 한의학 박사 정명안 집사는 한방진료와 동시에 Kaiser 병원 Critical Care Unit 에서 RN으로 근무하며 동양과 서양의 의학을 접목하여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한의사이다.

의료실은 분당과 연결된 친교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신의 한방의료기들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철저한 ‘청결과 무균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진료시간은 주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교인들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교인들을 우선 순위로 한다.



의료국 국장 이복희 원사는 “의료실 문이 열리기까지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신 모든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까운 미래에 공간이 허락하는대로 양방진료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모든 성도님들께서 꼭 방문하셔서 새로이 문을 연 의료국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말했다.

| 박창신 기자 |

“문서국원들간의 소통의 장”



문서국

지난 2월 5일 서세건 집사택에서 문서국 정기모임이 있었다. 지난 달 발행된 신문의 품평회와 이번 달 계획을 위한 모임을 매달 갖기로 하고 모인 두번째 모임이었다.

학창시절 이후 글을 써본게 언젠가 싶은 분부터 실제 신문사의 불꽃튀는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까지 참으로 다양한 구성원이었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주안에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삶의 현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나 마음은 하나! 어떻게 이 소식지에 하나님을 담아낼까였다. 오직 한가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일을 만들어 보자는 마음을 담아 생각을 모은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일군이였다.

성도 한 사람이라도 더 신문을 펼쳐 읽기를 바라며, 어찌 어찌 외부인 손에도 쥐어질 이 신문을 통해 주안예교회와 하나님이 공급해지면 더욱 좋겠다는 마음에 기사내용을 구상하고 연재거리를 고심했다. 한 사람 두 사람 수줍게 내놓기 시작한 의견은 늦어지는 귀가시간에 쫓겨어 10시 30분경 모임을 마쳤다.

처음 시작한 한 두 사람의 헌신으로 되어졌었지만 이제 1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으니 지난 달보다 이번 달이 그리고 다음 달은 더욱 기대가 되는 교회 소식지가 될 것이다. 모인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열의를 다했듯이 소식지를 손에 쥔 성도들도 이 소식지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커지고, 함께 보듬고 가야할 가족으로 성도들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다. 시끄러운 세상소리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하는 말들에 위로받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전진할 원동력이 되어 줄 소식지가 될 것이다.

아쉬운 것은 교회 모든 사역국의 공동된 문제로 사역국 봉사자 대부분이 두 세 부서를 겸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의 늘어나는 성도의 수와 달리 봉사하는 성도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역국에서 만난 분을 다른 사역국에 가면 또 만나고 또 다른 곳에 가도 보게된다. 이분들의 헌신이 아름답고 감사한 일임은 확실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일군이 이리도 한정되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분명 각 부서에 적합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조금만 열심을 내고 용기를 내어 물질 뿐만 아니라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하는 절실한 바람이 생겼다.

| 채은영 기자 |

세리토스 채플 주안에말씀



목소리 맞춰 함께 말씀 통독

교육부



우리는 주안예교회 꿈나무!



밸리 채플 주안에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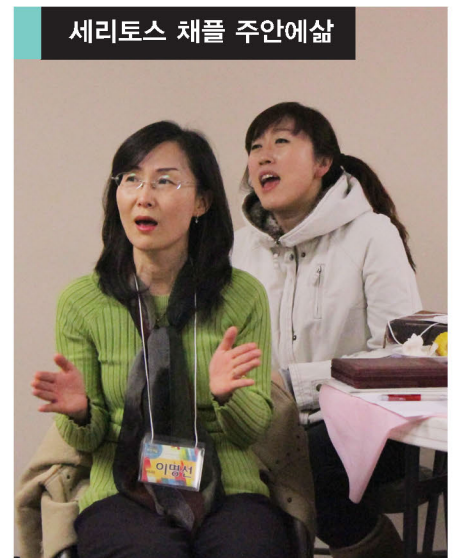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

장로부부 및 교역자 모임



장로(원로, 은퇴, 시무) 부부, 교역자들 한 자리에...

세리토스 채플 주안에삶



양육훈련,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우리 만남은 축복, 주안에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 놀라워...



여자친구 마주보기 부끄러워요



필기의 달인, 목사님 말씀 한마디도 안 놓쳐요



화관 대신 풍선을 쓰고...



청군 이겨라, 홍군 이겨라, 중고등부 미니 올림픽

##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 자녀



### 초콜릿과 비교할 수 없는 '발렌타인 치킨'

지난 2월 9일 세리토스와 벨리채플 교육부에서는 발렌타인을 맞이하여 잔치삼이 마련되었다. 아무런 시설없이 허허벌판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세리토스에서는 무슨 일인지 수제 홈메이드 치킨가스 정식이 준비되었다.

식당이 없으니 당연히 그 전날 8일 토요일 아침부터 서동희 집사댁에서 닭을 손질하기 시작 무려 5킬러의 닭을 장장 5시간에 걸쳐 튀겨냈다. 9일 주일에도 다른 날보다 서둘러 테이블을 준비하고 전날 준비한 치킨가스를 다시 튀기길 2시간. 전력이 약해서 자가 발전기를 사용하는 세리토스 셋팅팀의 도움으로 발전기 앞에서 자꾸 꺼지는 전기와 실감이하며 계획한 일을 차질 없이 끝내고야 말았다.

정민섭 부장집사는 극심스럽기까지 한 총무집사들이 잔치삼을 준비하는 동안 아직 이틀과 일곱이 낫설은 아이들을 진땀을 빼긴 했지만 온 맘으로 환영하며 총무들의 빈자리를 채웠다. 정래진 인원에 정래진 사역을 하다 이렇게 행사가 치뤄질 때마다 그 부서의 팀웍이 빛나는 것 같다. 정민섭 집사같은 경우 컴퓨터랑 씨름을 하려면 몇날 며칠도 할 수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하라고만 하지말라고, 낮가림이 심한 날 왜 이 자리에 앉히려하나고 전전공공하시던 분이였다. 이 분의 순종과 헌신은 사교적이고 활동적이 성품의 사람은 짐작할 수 없는 도전이고 순종이다.



식당은 고사하고 수도시설도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 매주 브르스타에 국을 데우고 여기 저기 전압이 괜찮은 곳을 찾아 밤통에 밤을 해서 섬도들에게 국밥을 나눠주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음식이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는 교육부 몇몇 아이들도 놓치지 않고 다양한 메뉴로 별도의 점심을 준비하시는 헌신된 몇 분의 사랑이 매주 500여명의 세리토스 채플 섬도를 행복하게 했다.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가 언제부터 초코렛을 전하는 날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잠상속에 유통기한이 지난 초코렛 날짜를 바꾸다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들어야 했던 그 때에도 우리들 사이에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난 이런 공간과 사람들 사이에서 숨 쉰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 내가 밟고 사는 세상은 항상 나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삼하게 하지만 내가 느끼고 호흡하는 하나님 나라는 나를 회복시킨다.

성 발렌타인을 기리는 날이건 초코렛 팔겠다고 만든 장사치들의 작품이건 나는 개의치 않으려 한다.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과 예쁘게 장식된 식탁에 앉아 자신이 사랑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질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니 말이다. 이 아이들이 장성하였을 때 세상은 안타깝게도 지금 보다 더 험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더욱 빛날 것이 분명하다.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는 아주 단순한 발상이 저지른 이 엄청난 일을 치루면서 헌신된 분들의 열정에 가슴 따뜻해짐과 동시에 다음 번에는 학부모들을 포함한 낫설은 그 누군가의 동침을 기대해 본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랑으로 보답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말이다. 사랑은 나누는 거라고 주일학교에서 부터 배우지 않았던가.

| 채은영 기자 |

### Unconditional Love

Dear God,

Thank you for everything. Honestly that's really everything I have to say other than I love you. But if I had to go into more detail, that would be different. I thank you for a roof above my head, a loving family and friends, forgiveness, and your grace, etc. But you God are the amazing one. You would send your only son to die along and painful death for me. A sinner who, although always asks for forgiveness still goes about life SINNING. What love is this? And in return I can only offer up my life. All my fears and failures. My hopes and dreams. If it was physically possible to own the world and give it to you, it still wouldn't be enough. But you still love me. All you ask from me is a broken heart. You are an amazing God, truly. I praise, worship, and love you to the maximum capacity that I can give. You come before anyone and everyone. Whenever bad things happen to me, you're always there. But when I don't need you I neglect you. How can you love such a sinner?



Seul Ki Jang

I honestly don't know, but I love you. I can't put it into words. I know I stumble and sin but you're going to be there. That you God for everything and I love you!

### A Vision of Love

Dear God,

Thank You for loving me for 9 years. I want to give thanks to you by helping your people and go on missionaries. I also thanks for telling me what was going to be when I grew up. I thank you for our pastor's blessing that I will become a person that whoever comes to me they would be healed which told me that I will become a doctor. I thank you that I didn't get sick and have a fever. I love you God.



Elisa Hanbi Cho



■ 이달에 만난 사람 / 주민의회 출마 신디 경희 리 집사

“포터랜치 발전, 한인 커뮤니티 돕고 싶어”



“밸리 주안예교회가 위치한 포터랜치는 한인이 전체 주민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지만 정치적으로 한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채널이 없습니다. 커뮤니티에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한인들 또한 우리끼리라는 의식을 버리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3월 1일 있을 포터랜치 주민의회(Porter Ranch Neighborhood Council) 의원에 임후보한 밸리지역 올드타이머 신디 리(한국명 이경희) 집사가 출마 포부를 밝혔다.

주민의회는 LA카운티 내 지역단위 기초 주민자치 기구로 커뮤니티 내 치안 방법 환경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시정부에 전달,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위

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기구이다. 이경희 집사는 “저를 포함해 출마자들은 평범한 시민들로 보다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었다”며 주안예교회가 포터랜치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민의회에 구성원이 됨으로 투표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회도 커뮤니티의 일원이므로 앞으로 주안예교회에 관련된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채널로 주민의회가 중요하며, 필요시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터랜치 주민의회 선거에서는 모두 5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총 21명의 후보가 출마하고 있다. 그 중 5명이 한인 후보다. 투표시간은 3월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안예교회 서쪽에 위치한 셰퍼드 오브 더힐 처치(Shepherd of the Hill Church)이다. 지역은 118번 프리웨이 즉 Rinaldi St. 북쪽, 동쪽으로는 Aliso Canyon(Zelzah St.) 서쪽은 LA카운티 경계인 Brown Canyon 까지이다.

16세 이상 주민과 이 지역내 비즈니스나 직장인, 교회봉사자, 도서관 공원 YMCA 등 시설 정기이용자도 투표자격이 있다. 교우들 중 주소가 포터랜치인 분들은 운전면허증이나 공공요금 고지서 등을 제시하면 되고, 그 밖에 교우들은 투표시 교회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문의: 신디 리(이경희집사) (818) 621-8949

| 조용대 기자 |

~ 성도님들의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

‘주안에 소식지’는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성도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명함 크기의 광고 문안을 제작하셔서 문서국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국에서 광고 디자인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는 문서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323) 810-9853, iccnnews123@gmail.com

■ 구역모임 요리 팁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 후,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리. 무슨 메뉴로 정할까 고민이 된다. 누구보다 교우들을 자주 초대하는 박창신 집사님, 캐터링이 편하지만 늘 손수 만든 음식을 내놓는 집사님의 실전 요리 레서피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연어구이 •



동맥경화나 혈전을 예방하는 EPA와 뇌의 활동을 돕는 DHA 등 오메가-3 지방산(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며 맛이 좋고 요리하기 쉬운 연어,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들어가는 연어 요리를 소개합니다.

1. 재료 (4인분 기준)

- \*뼈를 발라 낸 구이용 연어 12온스
- \*고운 소금
- \*후추가루
- \*마늘가루나 다진 마늘
- \*말린 파슬리 부순 것
- \*올리브 기름

2. 만드는 법

- 1) 오븐을 450도로 예열한다.
- 2) 껍질을 밑으로 놓은 연어살 위에 준비한 소스를 고르게 뿌린다.
- 3) 붙지 않는 오븐용 철판에 연어를 놓고 오븐 중앙에 철판을 끼운다.
- 4) 연어를 속까지 익힌다. (12~15분 소요)

<소스 만들기>

- \* 레몬 껍질 다진 것 ½컵
- \* 마요네즈 소스 3 table spoon
- \* 플레인 요구르트 3 table spoon
- \* 고운 소금
- \* 재료들을 수저로 잘 섞어 준비한다.

Garden salad, 야채찌면이나 김치와 곁들이면 좋습니다.



박창신 기자

추천 도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 지음, 생명의 말씀사)

만나기 어려운 책을 만났습니다. 저자 자신이 가리워진 책 말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양서 한 권을 저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 저 한 권 한 권을 내는 일은 훈장이나 명예처럼 여겨집니다. 보편적으로 저자의 이름 밑에는 저서와 역서 등이 줄줄이 열거됩니다. 그만큼 저자 자신의 이름을 세고 출판한다는 것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지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글쓴이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흔적이 아니요, 우리의 영을 시련겨 하리만큼 훌륭한 수작이기에 더더욱 저자의 낮아짐을 높이 사게 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쓴 역작임에도 드러내지 않는 겸손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만 집중시키고자 중보했던 그의 마음과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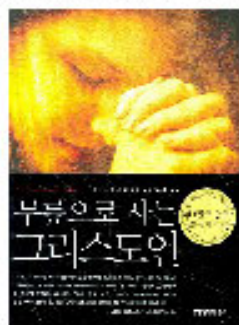


이현욱 목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사랑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서상이 시선이 고정되면 서상이 나에게 일을 할당하는 듯하지만, 시선을 하늘에 두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가 서상의 시선과 일어 미이길 원하고, 성령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선과 기도가 미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답이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그 답을 발견하는 방법은 기도인데, 저자는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거나 너무 적게 기도한다고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이 저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더 마음을 두게 하였습니다.

저자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진정 믿는지, 있을만하면 다시, 있을만하면 또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든 것 같아도 기도가 없었으면 이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았다면 하나님은 가장 잘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자가 만난 기도의 선배들의 이야기와 그의 글을 읽는다면,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의 바램처럼, 기도의 자리로 향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기도하지 않았던 삶과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이 매달렸으므로 이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리 없다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 약속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이 달려 있기에 주저 말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고전에 속하는 책이지만, 기도에 관한 너무 귀하고 특별한 책 중의 하나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 문학과 삶

“귀천”

천상병

한참 꽃피고 싱그러운  
젊음이 지나고 인생의  
실패와 아픔까지도 소  
중히 여길 수 있을만  
큼 성숙했을 즈음..나  
는 하늘을 자주 올려다  
보는 버릇 하나를 얻었  
다. 시인 김광림은 “담  
담할때 쳐다보라고 하  
늘이 저기 걸려있다”  
고 노래했지만, 그 보  
다는 “연연가 돌아갈”  
천상병의 이 하늘을 난  
가슴저리게 사랑한다.  
특히 이 떨어지고 난  
후 여중 속에서 올려다  
보는 별이 종종히 친구  
이주는 그런 밤 하늘을  
쳐다보면 두고 온 아득히 먼 고향 그리움이 낮을 뽀는다.

“귀천!” 신나게 땅 따먹기 하다가 아득아득 해가지면 어김없이 부르는 엄마의 소리가 툭툭 떨어지고 집으로 돌아야하듯이 그렇게 구름따라 돌아갈 곳, 내 아버지 계신 저 하늘 나라... 애 가고 싶다. 힘들고 가난하고 괴짜하게 한 인생을 살았던 시인이 그 고달픈 삶을 이토록 맑고 고운 가락으로 읊어낼 수 있었을 이유를 난 이제 알 것 같다. 비단 천상병 시인뿐 아니라 생각해보면 이름답게만 지냈던 시인들의 이면에 진하게 베어있는 삶에 지친 눈물과 한숨은 우리 누구나가 겪어낸 삶이 아니던가.. 어쩌면 우리들이 험잡게 살아낸 삶의 페이스는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팔아놓으신 그분의 비밀스런 돌봐있을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한송한다. “슬픔 많은 이 서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목련화 꽃봉우리가 더는 못 참겠다고 방긋 방긋 터져 송쉬고 파사로운 햇빛이 울타리 너머에서 우리에게 손짓한다. 그러나 불어지 않아서 실려 하늘로 피어 오르기도하는 나는 여기 내 자리 따사로운 햇볕아래 거으뵈며 졸아도 보며, 이제는 쓸데없는 여장을 챙기느라 부산될지 모르겠다.

인생이란 것이 여차피 부당없이 떠난 산재길이라면, 나의 보따리는 이제 짐될 것은 하나도 말고 가슴에만 담아갈 수 있는 참보석들만 챙기고 싶다. 알폰스 도테의 “별” 처럼 미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아내의 커피를 사러가는 어느 남편의 목가적 노래, 샅이 없어 만나러오지 못하는 친구에게 부쳐진 고매한 비행기 티켓, 자식없이 속삭이는 이웃과 함께 출리던 기도의 눈물같은, 그런 서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두명한 보석들만 챙겨서 어느날 그 문 앞에 서는 날 부끄럼지 않게 팔아놓을 수 있는 사랑의 보따리 말이다. 그리하여 산기슭에서 놀다가 소풍 끝나 출출 털고 돌아간 이 시인처럼, 이 짧은 서상 살던 동안에 일어났던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다 정녕 아름다웠더라”고, 나 또한 가서 그리 말할 수 있도록...

서미숙 기자



■ 임마누엘·샬롬·사랑성가대 친교모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함이라”

주안에 교회 벨리 채플 성가대원들은 2월 9일 주일 예배와 성가대 연습을 마친후 오후 4시반경 부터 김환희 성가대국장님 댁에서 친교 모임을 가졌다.

과란 풀장을 빙 둘러 아담한 팜 트리가 둘러쳐진 뒷마당에는 짜늘한 저녁시간을 훈훈한 온기로 품어내는 개스등이 여기저기 멋스럽게 세워져서 100여명의 참석자들의 마음을 따듯이 숙아내고 정스런 대화들도 시간가는줄 모르게 달빛과 함께 이어져 즐거움을 더했다. 1부 샬롬성가대, 2부 임마누엘 성가대, 그리고 노년이 더욱 아름다우신 사랑 여성성가대 모두와 이현옥 목사님을 비롯한 신실하신 교역자분들을 모시고 그동안 가까이 알지 못했던 주안에교회의 한가족들이 무릎을 맞대고 웃고 답소하는 참으

로 하나님 자녀들만이 느낄수있는 주안에 행복 한 모임이었다.

임마누엘 성가대는 박선우 집사의 지휘와 채인배 권사의 반주로 매 주일마다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위해 온마음을 모은다. 지휘자 박선우 집사는 지난해 9월에 벨리 채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80명이 넘는 적지않은 규모의 성가대를 여유로움과 유티와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박진감 넘치게 이끌고 계시다. “사랑이 넘치는 성가대”를 꿈꾸는 집사님을 따라 목소리를 다들으며 그 아름다운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모든 대원들은 기도드린다.

벨리 채플의 보배 사랑성가대는 카리스마 넘치는 황영옥 권사의 지휘와 구자형 집사의 반주로 그 연수만큼이나 꾸준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한다. 처음 시작 때는 50대 후반의 여성합창단이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지금은 80대의 권사님들이 7분이나 되지만 서있을 힘이 남아있는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신실함으로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심이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찬양에 대해 배우고 우리의 자세를 재 점검하는 영의 양식과 더불어 간이 잘 배인 즉석 바베큐와 넘치는 육의 양식도 일품이었고 게다가 한국 포크싱어의 감쪽소도 우리의 정서를 마음껏 채워준 멋진 저녁이었다. 상현달이 하늘에 걸리고 개스등이 활활 타올라 온기를 더해주고 따끈한 차 한잔에 소곤소곤 정스런 이야기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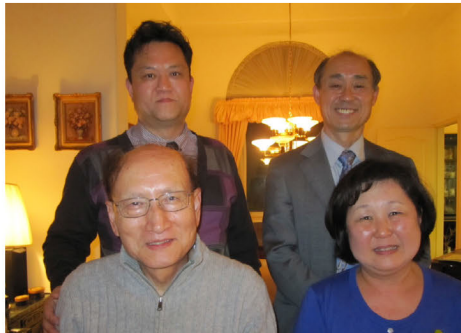


억어가는 밤...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교제는 밤늦도록 끝날줄을 몰랐다.

아! 주안에 행복!

과연 찬양은 노래만이 아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위가 영적인 것이라면, 찬양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며, 영적생활의 이유와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함이라(사 43:21)” 노래로 찬양하자, 소리치며 찬양하자, 악기로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하고 심지어 모든 만물이 찬양한다고 말씀하셨거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나의 찬송을 부르라”고...

| 서미숙 기자 |



▲ 박선우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현보 총무, 채인배 반주자, 김환희 국장

■ 주안에 축구팀 소식

“ 월드컵의 해, 공 차리 나오세요 ”

밤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드디어 첫 승을 올렸다’, ‘목사님이 한 골 넣었다’ 라는 등 주안에교회 축구팀 소식이 간간이 바람 타고 전해오던 차에 현장을 찾았다.

지난 10일 저녁 7시 30분 그라나다힐스 교, 스타디움 라이트가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는 축구장에 스포츠백을 메고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다. 찬양팀에서, 주차장에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낯익은 얼굴들, 부인과 자녀들까지 대동하고 오는 선수들도 있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주안에교회 유니폼으로 갈아 입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다.

드디어 첫 경기, 상대 블루팀의 공격이 만만치 않다. 주안에팀 초반 수비가 몇 번 뚫려 슈트로 연결됐지만 다행히 골대를 빗나가거나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다. 경기 15분쯤 우리팀의 역습, 정영광 간사가 오성태 집사의 어시스트를 받아 멋진 첫 골을



터뜨렸다.

축구팀장을 맡고 있는 오찬국 집사는 “축구를 통해 교우들이 건강과 친목을 다지고, 가족들도 함께 나와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당부했다.

3월부터는 장소를 글렌데일 스포츠 컴플렉스 내에 있는 구장으로 옮길 예정인데, 세리토스 채플 교우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편리한 위치로 주안에교회 팀들 간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된다.

문의: 오찬국 팀장 (213)303-8533



### #3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찬송가 338장(통364장) Nearer, my God, to Thee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승객들. 남녀 노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모두, 기울어 가리앉은 배 안에서 이리 저리 헤매고 부딪치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를 호화롭게 누리던 부유층도 있었지만 부푼 꿈을 안고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출신의 가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이었습니다. 영국 ‘사우스 샘프턴’항을 떠나 뉴욕으로 첫 항해를 하던 “타이타닉”호는 대서양 한 가운데에서 거대한 빙산을 만나 충돌한 후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2,200 명의 승객들은 그들을 삼키는 검은 바다에 대항하여 사투를 벌였지만 역부족에 절망하며 죽음의 그림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 때 10명의 밴드 연주자중 리더이면서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Wallace Hartley는 자신도 황급히 구명정을 향해 달려가다 아비규환을 이룬 현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느낍니다. 원래 그의 아버지와 그는 영국 플트마을 ‘베델 독립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장과 성가대 지휘자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 극심한 공포도 음악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오던 그였습니다. 다시 연주장으로 돌아 온 그는 바이올린을 찾아 꺼내 들고 기울어가는 갑판으로 나와 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바이올린 선을



이 애달게 퍼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연주 하던 S.F Adams의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입니다. 1절이 끝나갈 무렵 어느새 첼로주자와 비올라, 기타 다른 밴드들도 모여들어 합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2절 3절의 하모니가 죽음의 현장에 울려 퍼지자, 구명정을 노와 자에게 내어주고 배와 함께 죽음을 맞이 할 남은 승객들도 하나 둘 따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어느 듯 찬양으로 지워져 갔으며 그 장엄한 합창은 배가 바다에 잠길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영국의 연극배우 사라 플라워 아담즈(S.F.Adams, 1805-1848)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글 쓰는 재주가 비상하여 많은 시를 썼으며, 32세 부터는 연극배우로도 유명해져 대단한 사랑을 받습니다. 1840년 35세 때 약 4년에 걸친 무리한 연기생활로 인하여 무대

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떠나 집에서 요양을 하며 수십 편의 찬송시를 발표하였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아굽과 에서’의 이야기인 창세기 28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굽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하란에 있는 의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던 중 아굽이 피곤을 견디지 못해 베엘에서 돌을 베게삼아 잠을 잤는데, 그 때 땅위에 세워져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 28:15)”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굽이 깨어나서는 베게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엘(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아담즈는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아깝처럼 방황하며 고통과 외로운 속에 있지만 아굽과 함께하시던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 찬송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1841년에 찬송가 집에 실려진 이 작품은 미국 최초의 음악박사 학위를 받고 찬송가 발전에 큰 공헌을 한 로웰 메이슨(L. Mason, 1792-1872)에 의해 곡이 붙여진 후 끊임없이 훌륭한 찬송으로 대중의 마음 속에서 애창되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세건 기자

### “주안에” 2014년 3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김경일, 김숙희, 조이 메기, 새라 리, 박창신, 서미숙, 서세건, 이재호, 이지혜, 조용대, 채은영(기자)  
김다슬, 안동윤, 브라이언 조(사진) | 편집디자인: 김운영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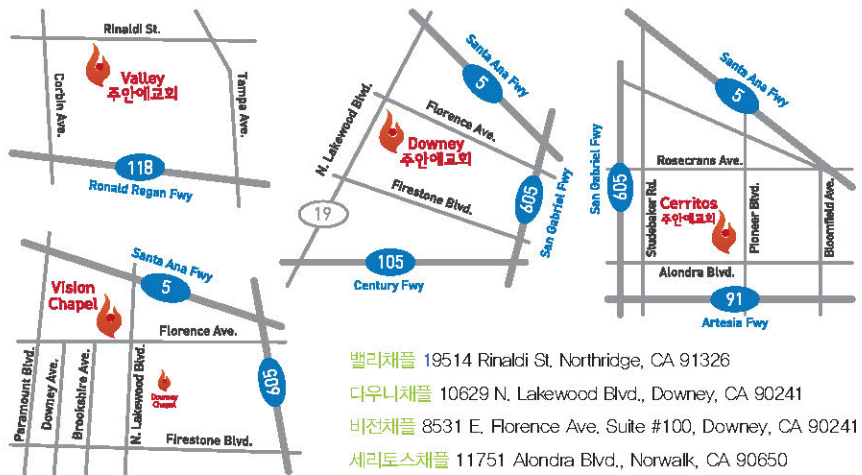
세리토스채플/ 오전 8:00, 10:00  
밸리채플/ 오전 10:00, 11: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저녁 7:45 다우니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다우니채플/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다우니채플 10629 N. Lakewood Blvd., Downey, CA 90241  
비전채플 8531 E. Florence Ave. Suite #100, Downey, CA 90241  
세리토스채플 11751 Alondra Blvd., Norwalk, CA 90650